

실내악 시리즈

에스메 콰르텟
아벨 콰르텟
아더 첼로 콰르텟
리수스 콰르텟
아레테 콰르텟
30일~11월 6일
광주문예회관

현악 사중주의 진수...박수를 보내다

‘현악 4중주의 진수를 만나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 기획공연 포시즌 ‘박수를 보내다’ 현악사중주 시리즈가 펼쳐진다.
문예회관은 오는 30일부터 11월6일까지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에스메 콰르텟, 아벨 콰르텟, 아더 첼로 콰르텟, 리수스 콰르텟, 아레테 콰르텟 등 5개 팀을 초청해 공연을 선보인다.
클래식 음악의 출발점이 되는 실내악은 클래식 연주 가운데 가장 다양한 모습과 연주 형태를 지닌 음악 장르다. 이번 공연은 실내악 음악의 양식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바로크 시대부터 하이든에 의해 현악사중주 형식이 확립된 고전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를 망라하는 다양한 음악으로 꾸며진다.
‘현악사중주 시리즈 첫 포시즌’은 30일 오후 7시30분 ‘에스메 콰르텟’이 연다. 런던 위그모어 홀 국제 현악사중주 콩쿠르에서 한국인 실내악단 최초로 우승한

팀으로 바이올리니스트 배원하·하유나, 비올리스트 김지원, 첼리스트 허예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공연에서는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G장조’, 코른골드의 ‘현악사중주 제2번’, 슈만 ‘현악사중주 1번’ 등을 들려준다.
제네바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3위에 입상한 ‘아벨 콰르텟’의 무대는 11월3일 만날 수 있다. ‘아벨(Abel)’은 히브리어로 ‘생명력’을 의미하며, 바이올린 윤은솔·박수현, 비올라 문서현, 첼로 조형준으로 이뤄졌다. 이날 공연에서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에 이르기까지 고전음악의 역사를 따라 고전의 정수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레퍼토리는 하이든 ‘현악사중주 5도’, 베토벤 ‘현악사중주 제4번’, ‘현악사중주 제15번’ 등이다.

이러 4일 무대에 오르는 ‘아더 첼로 콰르텟’은 유럽,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각기 다른 네 명의 첼리스트 이호찬·이성빈·박건우·이상은이 모인 앙상블이다. 독일어로 ‘나무의 나이테’를 뜻하는 ‘아더’는 기존의 클래식 곡 뿐 아니라 탱고, 영화음악 등 다양한 도전으로 그들만의 나이트를 쌓아 가고 있다. 이날 역시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을 시작으로 바흐 ‘영국 모음곡 3번’, 드뷔시 ‘아마넷 머리의 소녀’, 바르톨로메이 ‘퀵실버’, 바그너 오페라 ‘로엔그린’ 중 ‘대성당의 행렬’, 포퍼 ‘콘서트를 위한 폴로네이즈 D단조’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2020년 창단된 ‘리수스 콰르텟’ (5일)은 ‘관객들에게 웃음과 더불어 연주로 즐거움을 주고 싶다’는 의미에서 라틴어 ‘리수스(Risus-웃음)’를 팀명으로 정했다. 바이올린 이혜나·유지은, 비올라 장은경, 첼로 이보배로 구성된 리수스 콰르텟은 바로크부터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하며 한국과 미국을 주요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레퍼토리는 하이든 ‘현악사중주 4번 일출’, 바르토크 ‘현악사중주 3번’, 멘델스존 ‘현악사중주 6번’ 등이다.

이번 시리즈 대미는 ‘아레테 콰르텟’ (6일)이 장식한다. 2019년 창단한 아레테 콰르텟은 바이올리니스트 전재안·김동휘, 비올리스트 장운선, 첼리스트 박성현으로 구성됐으며 같은 해 금호아트홀 영체임버튼 서트 오디션에 합격해 2020년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데뷔 무대를 가졌다. 이들은 하이든 ‘현악사중주 제2번’, 베토벤 ‘현악사중주 5·11번’ 등을 들려준다.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티켓예매는 문예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문예회관 유료회원권은 14일 오후 2시, 일반권은 15일 오후 2시부터 예매할 수 있다. 문의 062-613-823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아벨 콰르텟’



‘아더 첼로 콰르텟’



꼭두 바나나 꿈으로의 동반

박희정 개인전
25일까지 관선재

‘바나나 바나나’

박희정 작가의 트레이드 마크는 ‘바나나’다. 조각과 회화 작업을 병행하는 박 작가는 지난 2019년 조각을 시작한 지 28년만에 열었던 첫 전시의 주제를 ‘나에게 바나나가 온다’로 잡았다. 따뜻한 느낌의 노란색을 줄곧 작품에 써왔던 박 작가는 바나나가 귀했던 시절, 바나나를 먹을 때면 그 달달한 맛에 행복감이 절로 밀려왔고 위로가 됐던 기억을 갖고 있어 그 감정을 작품에 담았다.

언젠가 들었던 꼭두박질관에서 만난 ‘꼭두’가 새삼스레 작가의 마음에 들어왔다. 나무의 따뜻한 느낌이 좋았고, 한국의 전통 수호신이라는 점, 새로운 시작을 담고 있다는 점도 마음을 움직였다.

오는 25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관선재 갤러리에서 열리는 세번째 개인전 ‘꼭두 바나나-꿈으로의 동반’은 타인의 행복과 행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복덩이’ 바나나와 함께 꼭두를 주제로 작업했다. 전시에는 조각 19점과 회화 6점이 나왔고 관람객들을 위한 포토존도 마련했다.

바나나를 머리에 이고 있는 고양이 가족, 길게 목을 늘린 여성과 아름다운 꽃, 넓은 가슴으로 온 세상을 품을 듯한 남성의 모습 등 그의 작품 속 대상들은 유머러스하고 유쾌하다. 작업 재료는 나무와 스테인리스스틸을 사용했다. 나무는 곰팡이 등 감내해야할 부분도 많지만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멋스러움을 표현하는 데 제격이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작품을 제작했다. 또 스테인리스스틸 작업은 빛을 사용해 그림을 그리기도 했지만 손톱을 이용해 자유로운 즉흥성도 담아냈다. 이번 전시에서는 화사한 색깔과 자유로운 상상력이 돋보이는 회화 작품도 선보이고 있다.

작품 소재는 작가 자신과 주변의 인물, 동물, 식물 등 다양하다. 그의 작품 속 주인공들은 밝은 표정과 함께 긍정적 에너지가 넘쳐난다. 박 작가는 ‘꼭두 바나나’의 의미를 “새로운 희망, 새로운 길, 정점을 찍는 사랑과 행복”이라고 설명한다. 전남대 예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한 박 작가는 광주시미술대전 등에서 수상했으며 (주)편 대표, 전남조각회, 한국여류조각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광주시미술장식품 심의위원 등도 맡고 있다.

‘나에게 고양이가족...’



天·地·人에 산과 꽃 백현호 초대전, 22일까지 금봉미술관



‘天地人 - 行’

평면화면 속에 등장하는 ‘산’은 입체감을 띠고 있다. 장지 수십, 수백장을 배접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채도별로 단계를 두고 수많은 붓질을 통해 완성해낸 화면의 색감은 간결한 산의 조형미와 어우러져 그라데이션 효과를 내며 신비로움을 선사한다. 작가는 거대한 산 아래 마치 수행처럼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일듯 말듯 조그맣게 그려넣었다.

금봉미술관(관장 한상운)이 한국화의 현대적 재해석에 몰두해온 정산 백현호 작가 초대전을 진행중이다.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天·地·人-生에서 天·地·人·行·花의 세계로’를 주제로 ‘산’ 시리즈와 ‘꽃’ 시리즈를 20호부터 8호 소품 등 다양한 크기로 선보인다.

기존 산수화의 전형에서 벗어나 단순화된 이미지의 산을 통해 다양한 작품 세계를 펼쳐온 작가는 화면

을 하늘과 땅과 사람으로 나누고, 각각의 공간에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붉은 산, 푸른 산, 하얀 산은 단순하면서도 강렬하고 그 아래 감춰진 수많은 색들의 움직임도 포착하게 된다.

전시에 나온 꽃그림은 매화, 산수유, 목련, 철쭉, 개나리 등 다채롭다. 화면 전체에 분채로 바탕색을 여러 겹 얹어 여백을 만들고 그 위에 채도와 명도, 그리고 보색대비를 통해 화사한 꽃들을 엮었다. 특히 수많은 붓질을 통해 형성된 선명하고 휘황찬란한 색채감으로 화면을 뒤덮어 강한 느낌을 전달하는 게 특징으로 색채의 밀도감이 돋보인다.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와 대구대 미술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한 백 작가는 지금까지 17회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대한민국한국화대전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광주시미술대전 초대작가며 전통과 형상화, 한국신목회, 예술사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자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비틀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지평지점 062)381-8212~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